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2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병무청 소관

나. 방위사업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2

가. 병무청 소관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9

나.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병무청 소관

(10시08분)

○소위원장 강대식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홍소영 병무청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대식 예, 그렇게 하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의 2026년도 예산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제도 구현과 사회복지준비금 등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원 속에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2026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덕교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예산 심사 사항은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사회복지무이행 지원, 현역명 모집, 병무행정 정보화 순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사업입니다.

2024년 7월 관련법 개정으로 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 시행 이후 특정업무경비를 13년간 변동 없이 일인당 월 10만 원 지급 중에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특정업무경비 인상을 위한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홍소영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사업과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 특정업무경비 현실화를 위한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24년도 7월부터 특사경 직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병역면탈 혐의 조사와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나 관세청 등 타 부처 수준의 특정업무경비를 확보해서 수사 활동의 효율을 높이고 특사경의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

○부승찬 위원 지금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해서 좀 낮은 편이잖아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많이 낮습니다.

○부승찬 위원 많이 낮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부승찬 위원 그래서 보통 법무부 같은 경우는 15만 원 그 정도가 나오는데 병무청은 10만 원에 불과해요. 그리고 24년 7월에 직무 범위가 상당히 확대됐잖아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1년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21건의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예,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사실 병역면탈은 형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덕적 그리고 국민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감정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이고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병무청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증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최근 저희가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도 활용해서 기획수사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의무자들의 임의제출 거부 등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영장 집행도 늘어나고 기피 수사를 위한 탐문 조사 등도 늘어나서 실제 제반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현실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덕교 다음 자료 2쪽입니다.

사회복무이행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 2억 9000만 원은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4회계연도 기준 집행률이 181.7%에 달하는 등 예산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규모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병무청장 홍소영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수용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

원하는 사업으로 증액을 통해 당초 사업 취지인 자기역량 개발과 복무 기간 중에 학습 지원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증액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역병과 형평성을 맞춰서 증액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청장님!

○병무청장 홍소영 예.

○임종득 위원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내용이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기강과 관련돼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거기서 지켜야 될 규정을 위반한 인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를 거의 안 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로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50%가 안 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원격강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병무청장 홍소영 원격강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의 낭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되어지는 것조차도 50%도 지금 통제를 못 하는 그 정도의 기강을 가지고 원격강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복무 위반자, 최초의 위반자에 대한 교육은 계속 진행을 해서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반복 위반자에 대한 교육의 성과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정해서 최초에 위반했을 때부터 교육을 진행시키는 거로 그렇게 수정을 할 예정이고 이 원격강좌 지원과 그거랑은 좀 다른 사안이니깐……

○임종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을 위한 원격강좌입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처럼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중의 대부분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현역은 전체 인원 중의 약 8.9%가 원격강좌를 지원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한테 지원하는 것은 5.9%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장해서 해 주면 사회복무요원도 병역을 이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임종득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누차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병무청의 기강 자체가 서 있지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징벌적으로 처해지는 교육조차도 50%를 참여를 못 시키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병무청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아무래도 제가 증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릴게요.

자발적 참여자가 전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했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24년 기준으로 5.9%에 해당합니다.

○**부승찬 위원** 5.9%.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을 자체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할 것 없이 전부 초과됐거든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초과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이 초과된 예산은 어떻게…… 전용?

○**병무청장 홍소영** 예, 전용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전용으로 갔던 거지요.

임종득 위원님의 말씀도 정말 지당해요. 즉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이런 강제성을 띤 것도 이렇게 안 하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것은 취지에 맞지 않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부승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징병제 국가에서 어찌 됐든 사회복지요원들도 일종의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용해서 쓰지 않도록 이 정도 증액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임종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안 계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덕교** 3쪽의 연번 3번과 4쪽의 연번 4번 사업은 연관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래요.

○**전문위원 서덕교** 연번 3번은 현역병 모집 사업입니다.

현재 모집병 선발 시에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병 선발을 위한 면접 중 상당수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면접 시스템 운영비와 면접위원 수당 등 1억 34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쪽의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병무청은 2027년부터 모집병 및 상근예비역 선발 체계 개선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해군·공군·해병대 일반병 모집 방식을 점수제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하고 보충역 대상 상근예비역 선발이 필요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4억 99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장 홍소영 먼저 모집병 선발 시에 실시하던 면접과 체력 평가 운영비 감액을 수용합니다. 그동안 모집병 선발 시 실시해 오던 면접 전형은 군복무 의지 등을 평가하는 목적이 있었으나 실제 군 임무 수행과는 관련이 적은 반면에 과도한 행정 소요가 발생하고 지원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국방부, 각 군과 협의를 통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모집병 및 상근예비역 선발 체계 개선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현역병의 군별 적정 충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집병이 특정 군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병역 의무자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모집병 선발 체계 개선과 상근예비역 자원도 보충역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5억인데 이것은 증액이 필요합니다.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부승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황희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었는데 한 말씀……

○황희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없습니까?

○황희 위원 예.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황희 위원님께서 잠복결핵 위탁검사와 관련된 부분의 정부 원안 유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황희 위원 예.

○임종득 위원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국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군에서……

잠깐만요, 갑자기 제가……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잠복결핵 환자가 들어오면 잠복하고 있다가 발생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징병검사 단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알려 주고 본인이 원하면 치료를 받고 입대를 하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인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군에 입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검사를 하는 취지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와서 위험을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병무청에서 할 것도 있을 것이고 군과 연계해서 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발전시켰을 때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취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챙겨 주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병무청장님, 병무청장님 처음에 취임하실 때부터 그동안의 국정감사, 현안질의 그다음에 오늘 예산소위까지 제가 참석하면서 청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방송도 안 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느낀 것은, 청장님 자료를 좀 보니까 지방청장님도 하셨는데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거나 다른 위원님이 드릴 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현안질의를 준비를 안 하고 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질의를 하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자꾸 뒤에 실국장님들한테 여쭙보시고 하는데 제가 경험할 때 같은 직군에 이렇게 근무를 하면 그다음에 또 국회에 이렇게 국정감사나 아니면 현안질의에 오실 때는 최소한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메모를 해 갖고 오시든지 참고철을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숙지를 해서 오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느낄 때 병무청장님에 대해서는 그게 좀 아쉽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마치 병무청장님한테 그런 걸 막 추궁하는 것 같아서 질의 안 한 것도 많아요, 디테일한 데이터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 머무르는 것이냐, 아니면 평상시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냥 실국장님들이 하도록 위임시키고 관심을 크게 안 갖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업무의 상위에 계신 분들이 데이터와 디테일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면 밑에 말단에 내려가면 그 업무는 날카로워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충분히 관성과 그다음에 과거의 습관대로 간다, 개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무청에…… 어쩌면 국방위에서 별로 이렇게 예산도 4건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그게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일지라도 저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면…… 오랫동안 병무행정은, 저는 평소 업무도 중요하지만 전시에 동원이 되게 되면 전시 동원 업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전시 업무라는 것 때문에 방치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관심 갖는 분야가 아니어서 방치된다면, 병무행정도 발전시킬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분은 병무청 출신이 아닌 군 출신이 하셨잖아요. 그분들보다는 병무청장님이 뭔가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은 대부분 그 업무에 대해서 디테일과 그다음에 갖고 있는 경력에서 쌓아지는 경험 요소가 매우 촘촘히 쌓여 있는 경우에 최고 헤드까지 간다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청장님이 능력도 있으실 거고 관심도 있으실 건데 어쩌면 국회라는 곳에 출입을 하는 경력이 짧다 보니까, 아마 많이 아시고 많이 평상시에 관심 있지만 순간순간에 이렇게 적응이 좀 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청장님이 오실 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촘촘히 챙겨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소가 되는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복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강대식** 예, 말씀하세요.

○**병무청장 홍소영** 저희가 2017년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같이 했을 때는 결핵 퇴치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보면 우리 청의, 우리나라의 질병 결핵 퇴치가 거의 퇴치 수준에 왔다는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역 판정 검사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하는 거를 좀 시기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대상도 인원도 조정 해서 2026년에는 전체 병역 의무 대상자로 하던 거를 그냥 사회복무요원으로만 대상을 조정한 건데 조정한 것도 저희 병무청만 한 것이 아니라 질병청의 자문위원과 질병청 그 다음에 국방부, 저희 병무청이 합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예산 자체는 어떻게 줄었어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산은 전체는 한 35억 정도 됐었는데 대상 범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1만 9000여 명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한 6억 9000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원안이 그렇다는 거지요?

○**병무청장 홍소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병무청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건에 대해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 더 첨언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의결 관련해서 홍소영 청장님 짤막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홍소영**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주신 고견은 병무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은 오전에 했고 오후에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나. 방위사업청 소관

(14시10분)

○소위원장 강대식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간략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6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방위사업청은 세계일류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전력 증강, 국방 R&D 그리고 방산 수출의 3대 중점 분야별 핵심과제를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하고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6년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방위사업청 본연의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6년 방위력개선 예산안은 20조 1744억 원으로 한국형 3축 체계와 AI 기반 첨단전력의 적기 전력화 위한 필수적인 예산과 국방 R&D 역량 강화 및 K-방산 수출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개발 첨단기술 기반의 자주적이고 압도적인 국방능력을 구축하고 K-방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대내외 안보환경과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강력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사청 소관 26년도 예산 심사 대상은 총 44꼭지입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지휘정찰사업 프로그램, 그중에 첫 번째 연번 1번 425사업(R&D) 사업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북한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중심지역 전략 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ADD 주관으로 연구개발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기 발사된 군 정찰위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상에 있는 위성운용센터의 적기 완공이 필요해서 26년 시설공사비 106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지금 정부안이 감액된 이유가 추가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시설공사비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게 적기에 다 진행이 됩니까,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이 총 몇 년 됐습니까,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시설사업까지는 27년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소위원장 강대식 2년 연장됐지요, 기간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총사업비는 약 98억 증액됐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국고 손실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것까지 제가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한 100억 원 정도 났지요, 손실이? 누구한테 잘못이 있고 누구한테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차후에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저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연번 2번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R&D)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백두체계 대체를 위한 신형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사업 공사계약 지연에 따라서 26년도 시설공사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 보시면요 사업 지연기간 4개월을 고려하여 공사비 1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패키지 시설 사업의 경우 이게 공사 지연이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전력화와 연계해서 적시에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한 번 답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전력화와 시설공사 간의 갭이 최소화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시설공사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소위 자료 3쪽입니다.

연번 3번 지휘통제 정보공유체계(R&D)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현재 각군 C4I 체계별로 운용 중인 데이터, 공통서비스, 단말기 등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군 통합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로 연구개발한 사업입니다. 본 체계는 26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10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6년 예산안에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가 사실은 선행 조치, 사타가 완료되지는 않았거든요.

○임종득 위원 사타가 안 돼서?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임종득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착수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그러면 26년 6월 달에 사타 결과를 예상하시는데 만약에 사타 결과가 안 되면 또 이걸 자칫하면 올려진 것도 불필요한 예산이 될 텐데 26년 6월에 사타 결과가 나오는 거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KIDA하고 잘 협조해서 반드시 그때까지 사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연번 4번 군용 한국형위성 항법체계(R&D)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항재밍·항기만 성능이 있는 위성항법 정보를 군 무기체계에 제공하는 군용 KPS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부처사업의 특성상 공통 활용 부분에 대해서 부처별로 분담 예산이 있는데요. 분담 예산의 적정 반영을 위해서 4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다부처 사업이 진행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특히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우주청하고 국토부 그쪽의 의견들하고도 조율하기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처별로 예산을 분담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리고 다 사전에 조율돼 가지고 2026년 안에 반영이 됐을 텐데 지금 이 적은 돈도 아닌 49억 4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가 분담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을 ADD의 민진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진원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그거와 관련해서 기품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됐고 그러면 기품원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각 부처에 맞는 수준에 부합하는 예산이 다시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액수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부처 담당하는 책임 부서가 지금 바뀌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5쪽입니다.

자료 5쪽 연번 5번 군위성통신 체계-Ⅲ(R&D)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안정적인 군위성통신체계 능력 보장을 위해서 군위성통신체계-Ⅲ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위성통신체계-Ⅱ 임무 종료 전에 대체 전력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사업 착수를 위해서 4억 2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제가 이것 확인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3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려면 개발이 6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게 되면 6년이면 32년까지 개발이 됩니까, 바로?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확신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개발할 겁니다.

○강선영 위원 32년에 계속 궤도 반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왜 빠졌을까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이게 사실은 선행조치가 미완료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 안 됐었는데 사실 10월 달에 선행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개발이 착수가 돼야 6년 후에 발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궤도 2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년에 착수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강선영 위원 그러면 꼭 6년이라는 기간이 준수돼야 되겠네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6년을 판단한 거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위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6년 안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32년까지 꼭 개발돼야 그때 32년 10월 이내에 발사를 해야만

유지하는 사업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사타는 완료되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사타가 완료되었냐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사타는 10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6쪽입니다.

연번 6번 사업명 다출처영상 융합체계(빌드1) 경미한 성능개량입니다.

수정 이유 보시면요 다수의 위성과 항공자산에서 수집된 영상의 처리속도 개선 등을 위해서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성능향상 및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적기 착수를 위한 19억 80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7쪽입니다.

연번 7번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 I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현재 현용 음성 중심의 전투부대 무전기를 디지털 기반의 TMMR 무전기로 대체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2026년도 예산은 당초 요구액 대비 부족하게 편성되어 전력화 지연 우려가 있어서 26년 예산에서 자산 취득비 96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반영 안 된 내용들을 보면 절차를 그때까지 종료를 못해서 대부분 빠진 거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사타 재검증 의 결과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업을 따로 그때까지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서 빠졌던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보시면 방사청에서는 다 이해하시지만 이게 저희 거치면 예결위원들이 또 가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재부에서 자른 게 아니고 그때까지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이 일부 절차를 완수하지 못해서 예산을 태울 때 못 넣었다, 그게 별도로 관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견.

○소위원장 강대식 청장님, 그러면 이거 몇 개 군단까지 다 끝났습니까, 전략화가?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대상이 총 4개 군단인데 2개 군단 완료했고 그리고 예산이 증액이 되면 내년에 5군단 전력화가 되면 이제 4개 중에 3개……

○소위원장 강대식 4개 중에 3개까지 된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8쪽입니다.

연번 8번 무인지상 감시센서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고하는 무인지상감시센서체계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한 무인감시체계로 조기 전력화를 위해 신규 67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이게 지금 과학화 경계체계 시스템에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임종득 위원 별도예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고정형이고 이것은 취약 지역에 운용할 수 있는 이동용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결국 DMZ 안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더 안쪽 지역에 GOP 철책 전방에 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 지금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전시 되면 줄어든 병력들이 넓어진 작

전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작전하기 위해서 예상 접근로 등에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임종득 위원 이 부분은 사타를 진행한 상황이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완료됐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반영을 못 했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이게 운용 개념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혹시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별도의 운용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이게 통합이 안 돼 간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상한 거고요. 따로 간다는 자체가 이게 난센스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멀리 많이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산악지형 GOP 특성을 놓고 보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북한에서 넘어오는 간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30년 이상 지금 안 넘어왔잖아. 1999년인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첩첩한 지형에다가 이걸 설치해 가지고 지금 이걸 과학화 경계시스템하고도 다르게 가는 이유가 뭐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이게 사실은 모든 무기들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까지 고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라고 하면 현 GOP 철책선 연안에서 전투가 시작은 되지만 전선은 유동적인 상황에서 즉……

○임종득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는 평시에 침투에 대비한 시스템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면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정밀하고 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이 시스템은 평시에 DMZ의 경계작전을 위한 하나의 참고용으로 중심 있게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성능을 갖춘 것을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 소요가 결정이 될 때 나중에 공격작전이든 방어작전하든 간에 어쨌든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위협에 대해서 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도 고려해야 되고 단지 이제……

○임종득 위원 이게 이동형이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 이동형 신고 다니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이동형입니다.

○임종득 위원 이동형이라고 하면 전시에 일부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소요를 결정할 때는 전시와 평시를 다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GOP 과학화 시스템과 만약에 통합 운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DMZ 지역에서 적 예상 접근로에 충분히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적의 접근을 경고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에서 경고가 된다고 하면 더 완전한 작전을 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소요로 가지만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강선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그러면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보병중대면 이 보병중대 편제 장비로 들어갑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래서 이제 편제가 돼야 되지요.

○강선영 위원 편제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요.

기참부장님, 이 편제 작업이 들어가요? 이것 협조됐어요, 정작부장?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예,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미래 보병중대 편제 당 몇 개가 들어가요, 이게?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GOP 중대당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강선영 위원 GOP 중대당?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예.

○강선영 위원 한 세트라는 것은 1식?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한 세트에 기본적으로 3개 조가 들어가는데 잠시 설명드리면 1개 조에는 11개의 동작감시센서하고 1개의 영상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동작을 감지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식별을 하고 영상 정보 및 탐지 정보를 중계기를 통해서 작전 병력 단말기까지 보내줍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주 기동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주 침투로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경지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기본적으로 예상 침투로입니다.

주목적인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시 작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DMZ 지역에서 수색 및 매복 작전에 일평균 20여 개소에서 120명의 병력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인감시센서가 들어가면 예상 침투로, 예상 귀순로상에 설치를 해서 DMZ 작전 소요도 줄이고 작전의 효과성도 향상시키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GOP 사단만 들어가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10개 사단에만?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예.

○강선영 위원 그러면 보병 중대급의 3개조 1세트씩?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예.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에 하면 사업이 다 가는 거예요, 한번에? 아니면 단계적으로 가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27년까지 다 들어갑니다.

○강선영 위원 27년까지?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예.

○강선영 위원 개발이 완료됐고?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예, 그렇습니다. 시험평가 완료됐고 타당성 확보했

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왜 임종득 위원님이나 저하고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주고 가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종득 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그리고 보좌진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신 바가 있고. 그러면 기재부를 왜 설득을 못 했느냐는데 육군하고 방위사업청과 열심히 기재부를 설득했는데 좀 전에 방사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재부 담당자가 그 윗분들을 설득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력의 부족이고……

○임종득 위원 아니, 군생활을 오랫동안 한 저도 지금 설득을 못 시키면서 기재부가 설득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청장도 이야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전·평시에 다 쓴다면데요. 제가 이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 개념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DMZ 경계작전용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평시에는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전시에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전시에는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중대와 중대 간의 공간지, 감시 사각지역 등 다양한 곳에서 전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말장난하지 마시고.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위원님,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MDL를 넘어까지 본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이 책임져야 될 책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요, 군생활 하면서?

지금 적은 DMZ을 통해서 침투를 안 해요. 그렇지요? 그게 몇십 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MDL를 넘어서부터 다 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경계병력이든 장비며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책임은 더 늘어나겠지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부터 폭으로 해 가지고, 선이 아닌 폭의 개념으로 경계 개념을 바꾸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그 안쪽을 더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개념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십니까?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위원님께서 GOP 경계작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이 아니라 지역으로 작전 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넓히는 것은 선을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필요성에 대해서 ‘평시에는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 무기체계가 평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시에도 활용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작전지역이 굴곡이 많고 수풀도 많고 그다음에 단위부대의 책임 지역이 넓어져서 감시 사각지역 및 공간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시에는 그

런 용도로도 사용한다라는 게 저희들의 운영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위원님, 추가적으로 저희가 소요 결정할 때는 전시하고 평시의 활용도를 다 고려해서 소요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개념 지역 개념으로 작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평상시의 GOP 작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전시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동형으로서 활용성도 있고요.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GOP 공간 개념, 어떤 지대 개념으로 앞으로 작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임종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육군의 간부들, 장교들, 특히 장군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MDL에서부터 GOP 라인까지를 볼 수 있는 이 무기 체계의 증가, 이것 자체가 분명히 더 족쇄를 채울 겁니다. 보면 움직여야지요. 관측이 되거나 하면 바로 움직이겠지요. 그러니까 MDL을 넘는 것을 즉각적으로 조치 못 하면 지휘관이 책임지는 게 지금의 문화예요. 왜 그렇게 스스로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거냐 하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폭은 GOP 라인부터 뒤쪽으로의 폭을 가지고 경계에 대한 부담을 지휘관한테 털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소위원장 강대식 이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가니까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것은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매복은 필요 없게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병력이 또 활동해야 될.....

○소위원장 강대식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방산업체 지정이 됐지요, 지금?

○강선영 위원 한화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한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방산 업체 지정이 됐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만약에 이게 증액이 안 된다 하면 문제점은 뭐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사실은 여태까지 연구개발하고 했던 여러 가지들에 매몰비용이 생기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강대식 매몰비용이 생긴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이것은 차후에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고.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연번 9번 사업명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Block- I 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소형무인기의 재밍을 통해 경로 이탈 및 추락을 유도하기 위한

소형무인기 대응 체계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정부안 심의 당시에 주장비 양산계약 착수금은 반영되었으나 패키지 시설인 시설 공사비 예산은 관련 근거 부족으로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패키지 시설사업 착수를 위한 설계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청장님, 제가 자꾸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말을 할까 고민인데 이 소형무인기대응체계 GPS 재밍 말씀하시지요? 이거 GPS 재밍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GPS 재밍 하신다는 건데요. 이것을 고정된 포상을 설치해서 고정시켜 놓으면 이게 오히려 대응을 특정한 방향이라든지 특정한 곳으로 오는 곳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양 끝단에 발칸, 비호복합 같은 거를 설치해 놓는데 그거는 이제 활주로가 정해져 있고 활주로 방향에 오는 게 명확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포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동이 용이하게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타당할까요,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당연히 이동형이 작전에 융통성이 있겠지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포상으로 해서 고정시켜 놓는 방식으로 할까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마 전체적으로는 이동형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 단계를 밟아서 다음은 이동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소형무인기 대신 GPS 재밍하는 이 장비, 그러니까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Block-I 을 어느 재대 급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계세요?

말씀하세요, 뒤에 어느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괜찮아요.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합참 제1전력처장입니다.

저희가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 개념 및 전 지점 방어 세 가지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방지역에서 선 개념으로 접전지역 무인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지점 방어 형태로 해서 소형무인기대응체계가 이미 중요 지역에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재 소요가 진행 중인 부분은 이 능력을 보장하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리고 합참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동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 지역에서 임무하는 이외에 이동형으로 필요한 부분 소요도 같이 추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포상이라는 위치의 결정에 무엇을 보는 거냐? 저게 침투로를 보느냐 아니면 중요 지형지물에 대한 보호를 보느냐, 아니면 방향을 보느냐 뭐냐.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제대에다 설치할 거예요?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이게 지금 현재 주요 부대, 육군 수방사 그다음에 해병 6여단 등 여기에 각각 들어가게 돼 있고 저희가 보호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적 위협에 대한 예상 침투로를 근간으로 해서 배치 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건가요?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예, 24시간 운영되고 이것은 360도 전방이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혹시 이 사업을 하면 해당 지역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전력기획1처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방사라든지 이곳에 무인기대응체계가 유사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지역 반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동 거리가 탐지가 10km 그다음에 재밍이 10km 정도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용 체계에 대한 재밍 피해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연번 10번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능 개량된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구매시험평가 중 장비 결함 발생으로 구매계약 체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6년 예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사업 지연으로 일부 집행이 어려워 767억 원만큼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구매 시험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연구비 8000만 원 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구매시험평가 경과를 고려해서 자산취득비 767억 감액에 동의하고요. 그다음 추후에 구매시험평가 재수행을 위한 0.8억 원의 시험연구비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지금 구매시험평가에서 문제가 생겼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3개 업체가……

○**임종득 위원** 업체가 3개 업체입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3개 업체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시간을 좀 주면 합격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을 아무리 줘도 안 될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 판정을 해 보면 알지 않나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저도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담당 팀장에게 시간을 좀 더 줘서 보완하면 안 되겠냐. 사실 규정상 구매시험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부적합했던 그런 내용들은 빠른 시간 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시 구매시험평가를 빨리함으로써 어쨌든 그런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임종득 위원** 여기서 예산을 빼는 것을, 감액시키는 것을 동의한다는 소리는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한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하게 되면 조금 텀은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임종득 위원**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많이 딜레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다면 예산에서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 중에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국정감사 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과학화경계 딜레이 되는 것을 내가 우려하니까 ‘평가에 부적합 받아 가지고 딜레이는 되는데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예산까지 빼겠다는 소리는 1년을 그냥 안 된다고 지금 봤다라는 것으로 나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제외하는 건 아니고요.

○**임종득 위원** 아니, 전체지요. 이게 전체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닙니다. 원래 1291억인데 내년에 진행될 것 약 500억 정도는 있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말의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구매시험평가의 불합격한 부분의 전체가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것은 당연히 불합격을 안 받았으니까 가는 것이고, 그것 아닙니까? 그 체계에 대해서는 전체로 지금 빠지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강대식**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첨단기술사업단장직무대리 정재준** 지금 첨단기술사업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미래지원부장 정재준입니다.

시험평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험평가는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재공고를 통해서 시험평가를 재개하면 내년 말쯤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내년 말에 계약을 체결하면 28년 말까지 전력화는 1년 정도 순연은 불가피합니다. 전력화가 3개년차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최소 물량인 500억 정도 규모만 남겨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계약해서 사업 착수하는 데는 차질

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평가비는 내년에 시험평가를 재개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 청장님 총사업비가 얼마데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4800억……

○소위원장 강대식 그런 것 같으면 2025년도에 100억, 내년도에, 내년까지 867억, 잔액이 4000억 남는데……

○방위사업청첨단기술사업단장직무대리 정재준 그래서 다만 시험평가의 유동적인 측면이……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결국 27년까지는 전력화를 할 수 없고 2028년 또 1년 연장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방위사업청첨단기술사업단장직무대리 정재준 27년부터 일부 사단은 전력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연부액은 총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배부해서 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왜 이렇게 계속 잡음이 많이 들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첨단기술사업단장직무대리 정재준 이게 구매사업이긴 한데 시설사업과 장비들을 설치하고 또 운용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업체들이 본인들의 입장들을 표명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들리시기에는 좀 민원성 의견들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하여튼 방사청하고 육군이 좀 공정하게 이런 것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방위사업청첨단기술사업단장직무대리 정재준 앞으로 더 유념해서 사업 관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연번 11번, 중거리자폭드론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중거리자폭드론을 국외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최초 입찰공고 시에도 유찰, 재공고에서도 유찰 그래서 사업 추진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25년에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해서 26년 예산 자산취득비 중 103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ROC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외에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처음에 두 개 업체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그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임종득 위원 우리 국내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거?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가 구매로 한 것은 국내에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구매로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 지금 미충족한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이거 가야 됩니다.

○임종득 위원 가야 되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질문.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

○부승찬 위원 이게 국정감사 때도 계속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드론작전사령부에는 작전교리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무기를 갖고 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이것 전액 삭감해야지. 아니, 교리도 없는데 지금 무인기만 갖고 오면 어떻게 운용해요? 여기 보면 전시 전략표적 타격, 연합지휘체계에서 이게 가능해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사실 이거는 작전의 개념과 사실 소요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는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승찬 위원 이것은 전액 26년도 안 전액 삭감 의견 올립니다. 전액 감액.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기회 주시면 합참 전력1차장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이번에 작계 5022-24를 하면서 드론사의 지휘관계는 합참에 소속해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통제권을 각 구성 군사에 위임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거리자폭드론 소요가 진행된 것은 BMOA 1·2번의 TEL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표적으로 해서 운용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운용 타격 필요성이 같이 제기가 되면 이것을 메인 드롭(main drop) 방식, 발진 이후에 조종자가 표적을 식별해서 자폭하는 형태로 해서 운용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F-HOUR 발령 이후에 지대지 및 공대기 자산으로 BMOA의 TEL을 타격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있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부승찬 위원 그러면 띄워 놓는 거예요? 그냥 제공이예요?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그 제공이……
- 부승찬 위원 제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제공 시간은……
-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다섯 시간 이상입니다.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ROC가 다섯 시간 이상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 부승찬 위원 다섯 시간?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예.
- 부승찬 위원 좌우지간 이 작전개념이나 이런 것 설명 전혀 없이 그냥 무기 사 주세요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것 저는 의견이 26년도 안 전액 삭감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 강선영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
- 강선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BMOA 작전이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킬체인에 해당하는 겁니까?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킬체인 표적으로 같이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강선영 위원 킬체인 표적으로 같이 감수할 수 있지요?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예.
-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전체적인 킬체인의 자산 취득이라든지 무기체계 전반을 다 봤을 때 2030년대 중반까지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가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예.
- 강선영 위원 지금 정부에서 2030년 6월 이전에 전작권 전환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완성되지 않으면 킬체인에 대한 그런 충족, 전작권 전환에 대한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그것은 없습니다.
- 강선영 위원 그건 없어요?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예.
-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네요?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그런데 저희가 무기체계의 다양화적인 측면에서 합참에서 킬체인 수용의 부분을 JDAM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대지 자산을 우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요 결정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무인전력으로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소요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 강선영 위원 그러면 부승찬 위원님이 전액 삭감하겠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논리가 안 돼요. 킬체인이 거기 2030년대 중반까지 하는데 킬체인의 JDAM이라든지 지대지 뭐다 해서 충족이 되는데 이것을 왜 부수적으로 또 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 부승찬 위원 저는, 봐요. 속도가 어느 정도 돼요?
-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속도는 시속 200km 이상……

○부승찬 위원 200km/h 이상?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아닙니다. 속도 160km/h가 속도입니다.

○부승찬 위원 최대 속도 160km/h?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거기 그냥 근처에 가서 채공하다가 감시센서로부터 식별되면 센서 또 슈터의 개념으로 간다는 게 이게 맞아요? 맞냐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발진기지에서, 발사대에서 발사해서 식별이 돼서, 아니, 탐지가 돼서 그리고 이제 식별이 된 이후에 BMOA지역에 있는 TEL을 공격하는 게 작전 개념상 맞아요, 160km/h짜리가?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저희가 이동표적을 식별을 하면 그것을 지휘통제기구로부터 표적 정보에 대한 전송을 하고 타격결심에 대한 자산이 최인접에 어디가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공중자산이 될 수도 있고 채공하고 있는 드론전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표적 타격 할당을 하면 그것을 표적 타격을 하고 비디오로써 그 임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작전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여쭙보는 게 아니고……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그래서……

○부승찬 위원 이게 어거지로 사업을 가기 위해서 작전개념, 코디(CODI) 개념에 그냥 맞춰서 가는 것 같다는 느낌밖에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3축체계에 들어가요, 자폭용 드론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위원님, 킬체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들이 사실 충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BMOA 지역의 TEL에 대해서, BMOA 지역도 사실 반경이 큰 상황이고……

○부승찬 위원 이게 어찌 됐든 BMOA 1·2만 한다는 거예요? 1·2 지역만이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이거는 거리가 작전반경이 짧기 때문에 BMOA 1·2번지역.

○부승찬 위원 1·2번 지역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승찬 위원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즉 말하자면 그냥 개념적으로도 그다음에 전투사의, 작전사의 운용적으로라도 아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고 어찌 됐든 지금 참가 업체 모두 평가 기준 미충족이잖아요. 여기 그냥 돼 있네. 평가 기준을 미충족한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보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원래 임무통제장비와 지상통제장비를 개별로 납품하도록 했는데 업체에서는 통합을 한다 해서 그 조건이 안 맞은 것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자꾸 소요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TEL들을 제압을 해야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타격수단들이 충분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이 정부자산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채공하면서 바로 표적을 인수받아서 타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승찬 위원 아니, 청장님 이해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3축체계에서 킬체인이라는

그냥 개념만 갖다 놓고 무조건 무기체계를 사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지금. 전력이 모자라니,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가 효과성이 있느냐까지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매시험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아니……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감액에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승찬 위원 아니, 이게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앉아 계신데 최소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된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킬체인 자산이야’ 그러면 다 해 줄 줄 알아요. 어떻게 드론으로 킬체인 자산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TEL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폭약으로 TEL을 부수는 것도 있고……

○부승찬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TEL도 TEL 나름이지요. 이쪽 때리면 안 맞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런 거잖아요. TEL도 60km/h 이상 다 되는데, 속도가.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런데 이제 지형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ROC를 설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비상감시센서하고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강대식 이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니, 이거와 관련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방사청장님 말고 뒤에 계시는 거기 각 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작계가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5022로. 제가 그래서 그 작계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와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전 작계잖아요. 그러면 작계가 변경이 됐느냐, 아니면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작전개념이 반영됐느냐를 알려 주고 작전개념에 맞춰서 이 무기체계를 전력화했다고 하는데 결국 무기체계라는 것은 싸우는 방법, 적이 변했나 아니면 과학기술이 발전했느냐, 전훈이 분석됐느냐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작전개념, 작계가 변화됐는데 설명을 비문이라고 ‘국회에 단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공개적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작계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서 이러한 작계에 맞춰서 적이 변화됐고 우리의 싸우는 방법이 변화됐다, 과학기술은 이렇게 발달했다, 그에 맞춰서 무기체계의 방향성은 이렇게 우리가 진화하려고 한다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라고, 각 거기에 좀……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소요와 관련해서 합참이나 또 소요 군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의 추진 방법과 관련돼서만 얘기하다 보면 사실 소요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분명히 제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획득뿐만 아니고 소요 기획 단계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얻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 부분도 마지막에 토론을 거쳐서……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무인지상감지센서하고 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연번 12번, 화생방보호의-Ⅱ(R&D)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현용 화생방보호의 대비해서 기능과 편의성이 향상된 화생방보호의-Ⅱ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당시 사타 진행 중으로 신규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였고요. 사타 조사 결과가 나와서 26년도 정상 추진을 위해 36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청장님, 지금 이 사업이, 12쪽에 화생방보호의-Ⅱ R&D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강선영 위원 15쪽에 보면 화생방 물자 추가 구매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화생방 물자, 뒤의 15번 것을 먼저 얘기하자면 현재 보유율이 64%이기 때문에 이걸 84% 이상 확보하겠다, 그런데 화생방Ⅱ 연구개발을 한다, 26년에서 33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현재 64%로 부족해서 20%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지금 이렇게 112억이나 자산취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왕 할 거면 보호의를 개선된 걸 보급할 것이냐.

새 거를 개발하면서 옛날 거를 이렇게—20%면 지금 입는 것의 3분의 2를—112억을 투자해서 사겠다는 것은 마치 이거를 이미 만들어 놔거나 개발하는 업체가 소모시켜야 할, 창고에 들어 있는 걸 다 사 주는 거와 같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고요. 사실 전쟁이 보호의-Ⅱ 개발될 때까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당장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우리 병사들 개인의 생존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라고 하면 사실 구 버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2019년에, 2020년에 UH-60 성능 개량 미를 때, 2035

년 이후에 개발될 차세대 기동헬기를 위해서 선행 전력에 대한 성능 개량은 미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제가요?

○강선영 위원 합참에서랑 육군본부랑. 저 뒤의 기참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리가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2033년 보호의 개발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하기는 하지만 일단 새 거를 개발하는데 옛날 것 구형, 무겁고 온몸에 다 석탄 묻어나는 그거를 계속 추가로 구매해서…… 보호의 갖고 있으면 이것 수명, 내구년 몇 년입니까, 기참부장님? 몇 년이예요, 옛날 거?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육군 기참부장 오혁재 소장입니다.

현재 거는 5년입니다. 개발할 것은 목표 수명이, 저장 수명이 10년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산 건, 지금 사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새 거 조달되면 다 폐기해야 되는 112억 원이예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화생방보호의 확보가 최저 32%까지 떨어져서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였느냐 하면 14년도부터 17년까지 화생방보호의-II를 개발을 시도했다가 19년도에 최종 실패를 했습니다. 업체 주도 개발을 할 때 기술력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성공을 전제로 기존의 화생방보호의 확보를 19년도부터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개발을 실패하니까 다시 기재부 설득하고 예산 반영하고 뭐 하는데 3년이 걸리다 보니, 그러다가 저장 수명 5년밖에 안 되는 것들이 도태가 되다 보니 필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율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위원님, 향후에 보호의-II가 개발에 성공이 돼서 전력화될 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의 저장 수명이 도래하고 신뢰도가 떨어져서 도태되는 물량만큼 축차적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중복 투자는 되지 않을 것이라라는 말씀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것, 금년도 기준으로 이미 64% 확보되어 있는 양이 5년 수명이니까 2033년에 개발이 되면 일괄 구매하지 않고 그 당해 연도에 소모되는 양만큼씩 구매하겠다는 거지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예,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대해도 끝까지 내가 찾아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제대는 왜 하는데? 계속 근무해야지 왜 제대를 해?

○부승찬 위원 앞으로 10년은 남았는데……

○소위원장 강대식 연구개발하는 사업비가 310억이라고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양산하는 비용은 별도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양산 비용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한 8200억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8200억?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몇 벌 정도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100만 세트요.

○소위원장 강대식 100만 세트?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아까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쪽 걸 같이, 동시에 먼저 해 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강대식 예, 같이 하지, 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현용 화생방 장비 추가 구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15쪽 연번 15번입니다.

화생방 장비 물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현재 편재 대비 부족한 화생방 장비·물자를 매년 반복해서 구매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64% 정도의 보급률이라서 야외 전투원에게 화생방보호의 최소 한 벌의 지급을 위해서 추가 자산취득비 1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는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러면 13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번 13번 K2전차 양산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미래 전력구조와 전장환경에 적합한 K2전차를 확보해서 육군에 전력화하는 사업이 당초 사업인데요. K2전차를 해병대에 전력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병대 전력 신규 소요에 대해서 적기 전력화 및 사업 착수를 위한 자산취득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해병대에 29년 이후 적시 전력화 및 사업 착수를 위해 K2전차 양산 소요를 조속히 반영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에서 소요 결정은 언제 해요?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합참 제1전력처장 김세훈 준장입니다.

현재 K2전차에 대한 소요량을 늘리기 위해서 육군과 해병대에서 소요 제기가 되어 있으며 분석 실험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올 연말에 소요 수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올 연말?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예.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알겠어요? 됐습니까?

○강선영 위원 예.

○임종득 위원 저도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강대식 예,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지금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거에서 추가로 10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반영이 됐다는 소리는 기재부까지 설득이 돼서 예산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병대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 왜 처음부터 해병대는 포함을 안 시켰을까? 부승찬 위원이 난리를 치니까 포함시켰나?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재부한테……

○임종득 위원 다른 건 지금 예산이 26년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양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거는 육군의 4차 양산 건은 다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해병대 착수를 위한 10억이 좀 필요하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해군에서 똑바로 안 했네, 보니까. 해병대라고. 육군은 군이 다르니까 또 가만히 있었던 것 같고.

알았어요.

○부승찬 위원 육군이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소위원장 강대식 예, 부승찬 위원.

부대의견?

○부승찬 위원 예, 이것 부대의견도 좀 다뤄 줬으면 하는데 동의 좀 해 주시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동의합니다.

○부승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소위원장 강대식 부대의견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승찬 위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어디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자료 하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아, 밑의 그것. 나는 뒤에 또 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부승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진짜 해군이 신경 써야지요. 해병대의 K2전차 전

력화사업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최근에 저도 해병대사령관하고 이 K2전차를 상륙작전 때 더 위험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저도 재촉을 했고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소요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청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육군과 해병대가 중복된 전력들이 많잖아요. K2전차, K-9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군이 안 하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합참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참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도 서포트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합참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부승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합참에서 소요 결정할 때 공통 전력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한 군이 아니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군에 대해서 모두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K2전차 소요 수정에 대한 부분도 해병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빠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소요 반영할 수 있도록 합참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소요 결정, 소요 제기할 때 해병대 부대를 가 보세요. 그냥 쓰다가 버린 것들 쓰는 곳도 많아요. 진짜 이번에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훈련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열악해. 그러니까 합참이 중심을 잡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뭐 해병대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지, 지금까지 무슨 장비로 버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합동참모본부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앞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해병대 전력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방사청도 관심 갖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위원장님, 부대의견도 채택하는 걸로……

○소위원장 강대식 예, 부대의견도 채택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14쪽입니다.

연번 14번 중형전술차량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보병대대급 부대의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형전술차량을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을 고려해서 예산안에 미반영되었지만 사타 결과 조건부 타당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미래 육군



건설을 위한 보병부대 기동화의 핵심전력으로 적기 전력화 및 사업 착수를 위해 신규 1억 31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 갑시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5쪽은 말씀드렸고요.

○소위원장 강대식 잠깐만, 잠깐만요.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15쪽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연번 16번, 사업명 81mm 박격포-II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현용 81mm 박격포 대비해서 성능과 기동성이 향상된 81mm 박격포-II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예산안 당시에 비첨단전력으로 분류돼서 예산에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이 사업의 추가 소요에 대한 전력화를 위해 착수금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청장님, 이것 왜 기재부랑 협의가 안 됐습니까? 드론으로 어떻게 박격포를 대체하라는 기재부의 의견은 어떤 거로 인식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박격포가 가진 장점이 있고요 드론이 가진 장점이 있는데 사실 기재부는 예산 논리, 이것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첨단전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 가면서 설득을 해 나가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KIDA 비용 분석이 안 돼서 초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비용 분석이 완료됐기 때문에 착수금 1억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전력화해서 대대급의 전투력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현재 소요도 살아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17쪽입니다.

연번 17번, 사업명 230mm급 무유도탄(2차양산)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230mm급 다련장(천무) 체계에서 운용이 가능한 무유도탄 2차양산 사업입니다.

3축 체계의 실효적 능력 발휘를 위한 천무 무유도탄의 적기 확보가 절실하다는 전제하에 26년 2차양산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18쪽입니다.

연번 18번, 사업명 K1E2전차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재 운용 중인 K1E1전차를 창정비와 병행해서 K1E2전차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에 첨단 전력 우선 기조로 예산안에 미반영된 상태이고요.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K1E1전차에 장착된 노후화된 포수조준경 교체와 냉방 장치 장착 등을 위해 5억 원의 신규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청장님, 제가 이거 필요성은 동의하는데 이거 1000대를 다 하실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거는 나중에 K2전차라든지 그 이후에 전차의 소요를 고려해서 추후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대를 다 하는, 물론 당연히 이게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30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30년 이후가 됐을 때 전차의 신규 소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어차피 전차에서 포수조준경은 필수적인 거고, 전투에 필수적이고. 냉방 장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데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둘 다 필수적인데 동의를 하

는데 이거 반대하는 분들은 노후화된 장비에 돈을 1조 2494억 원이나 들여서 다 개조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숫자를 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우리가 운영할 때까지 운영하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라도 성능 개량을 좀 하고 장비 1000대가 똑같은 수명 연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내구 연한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내구 연한이 좀 얼마 안 남은 것들은 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정도까지 사용할 만한 양산 연도를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5억 1000은 반영하되 나머지 1000 대를 다 하겠다라는 사업이 아니고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동의하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전차의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다음에 신규 전력, 구형 전력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율 이런 걸 고려하고요. 당연히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중에 가시면 기재부랑도 협의하시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여름에 진짜 더운데 그 철판 속에 들어 있는 우리 병사들, 그분들에게도 생존에 필수적인 삶의,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을 충분히 해 주시고 낡은 장비를 개조하냐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전투가 이렇게 하루 훈련하는 게 아니고.

○강선영 위원 그럼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수십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작전 환경, 운영 환경 자체가 전투력 발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설득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걸 얼마라도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내가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81mm박격포-II는 육군이라든지 합참이라든지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청에서는 증액 요구를 국회에 하지 않았습니까, 비첨단 무기로 분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거는 보면 K1E2전차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한다. 이거는 첨단 무기로 분류돼서 이렇게 증액을 건의한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첨단 무기의 기준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위원장 강대식 우리 정부 기조가 지금 첨단 무기고 비첨단 무기고 이렇게 확연히 좀 많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소요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합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그 제대에서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군의 입장 그 제대의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해 주고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런데 기준이 육군이라든지 합참에서 건의한 이런 사항들은 국회 증액 요구에 안 담겨져 있고 이 전차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기준이 뚜렷하게 뭐가 있나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81mm박격포-II나 K1E2전차 양산이나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런데 하나는 국회에다가 증액을 요구했고 하나는 증액 요구 안 했고 이러니까 무슨 기준이나 그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대답하시기 곤란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제가 한번 부장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체크해 보시고 이 부분들도 정부 기조하고의 발맞추는 거는 나도 받을 맞춰야 된다고는 인식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소요군에서 건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 요구 안 하고 미반영된 부분 증액 요구하고, 이런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소요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 다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고요.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갖다 보니까 조금 소요군 의견하고는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통을 하고 일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19쪽입니다.

연번 19번, 사업명 특임여단 전력보강-II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특수임무여단의 특수작전 간의 적 기갑·기계화 부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특수작전용대물타격무인항공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11월 계약체결을 기준으로 26년도 예산이 29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FMS라든지 상업구매 병행 추진을 위한 행정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서 아마 26년도에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 201억 원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하면 전력화는 언제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마 27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27년까지.

기재부가 과다 편성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가 기재부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사업을 FMS,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상업구매 2개를 경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 기간이 추가 소요 돼서 계획 대비해서 계약 체결 예정 시점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 감액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연번 20번, 사업명 제독차-II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제독차-II에 제독장치를 탑재한 차량 개조 즉, 중형표준차량으로 개조해서 후속 물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제독장치 핵심 부품에 대한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22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감액에서 과감하게 감액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반성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사실은 아까 제독장치의 핵심 부품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저는, 관리가 좀 엉망이다. 이렇습니다, 2024학년도에 사타까지 다 통과했는데 올해 체계기본개발계획까지 수립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사업관리, 앞으로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종과 관련돼서 충분히 체크했다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조치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함정 사업입니다.

연번 21번, 고속전투주정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해·강상 경비 및 서북도서 적 기습강점 시 신속 증원 등의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고속전투주정을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패키지 시설 공사 설계 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 일정이 순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의 공사비 예산 11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8월에 용역 계약 체결했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작년 8월인가 시설 공사 용역 체결 안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작년……

○소위원장 강대식 아마 작년 8월 맞을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설계 기간이 연장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설계를 하면서 함정을 고정하는 장치를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설계 기간이 연장이 돼서 사업 착수가 조금 딜레이됐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패키지 사업 이 문제에 대해, 시설 공사 이 문제는 사전에 패키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우리가 사전에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저것 같이 묶어 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는 앞으로 훨씬 빨리 나갈 것도 다른 하나에 묶여 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이 문제 앞으로 좀 잘 생각해서 사전에 이거는 같이 묶어 갈 것이냐 아니면 따로 갈 것이냐 이런 사업들을 좀 분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함정이나 항공기도 플랫폼은 들어오는데 탄약이 일치가 안 돼서 장비만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과 운용하는 탄약이나 전투체계의 그런 여러 가지 전력화식이 일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와 같이 시설과 장비가 일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갭을 최소화할 것인가 아니면 또 분리했을 때 더 효율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통합해서 가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22쪽입니다.

연번 22번, 잠수함구조함(ASR)-II Batch-II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수명주기 도래 예정인 현재 잠수함구조함의 대체 전력을 확보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잠수함구조함의 기능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된 잠수함구조함-II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착수금 20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00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김병주 위원이 제기하신, 같은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8400만 원 빼고 200억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착수금 200억 8400만 원에 대한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청장님, 제가 궁금한 건 구조함 이것의 사이즈, 그러니까 구조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톤 정도?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것은 제가 답변이 제한돼서 해군기참부장한테 넘기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해군기참부장님.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태훈 해군기참부장 김태훈 소장입니다.

5000t급으로 착수 예정이고 똑같은 급의 강화도함이 25년도에 기지전력화되어 1척 신행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구조함이 5000t급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능력이 5000t급이라는 거예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태훈 이 ASR-II의 톤수가 5000t급이고 구조능력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이해 못 했는데…… 그러면 5000t급이 그 이상을 인양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태훈 그러니까 잠수함을 인양하는 것은……

○강선영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이상우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이상우입니다.

잠수함구조함은 잠수함의 승조원 구조를 더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 구조함에 탑재된 DSRV라는 전용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번에 17명을 구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총 3회 임무가 가능해서, 잠수함 승조원 50명인데 51명까지 총 3번에 나눠서 승조원을 먼저 구조하고 나중에 잠수함은 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임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애는 잠수함승조원구조함이에요?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이상우 일단 잠수함 승조원을 구조하는 게 우선적인 임무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애가 걸어서 인양도 돼요?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이상우 그런 것들은, 인양능력은 실제 수상함을 구조하는, 수상함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그런 수상함구조함이 따로 있고요. 이 잠수함구조함은 인명구조를 더 우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떤 기능이에요, 애가 잠수함처럼 같이 물속으로 잠수해요?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이상우 아닙니다. 물속으로 잠수하는 게 아니라 잠수함구조함에는 ROV라는 무인 인양 로봇팔을 가진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인양색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인양 작전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DSRV를 먼저 내려보내서 잠수함과 체결을 해서 인명구조를 먼저 한 이후에 그다음 ROV를 내려보내서 체결을 한다든지, 구조색을 결색해서 인양을 하는 작전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수상함구조함에 DSRV를 붙이면 그 기능을 못 해요?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이상우 기존에 있는 수상함은 광양함이나 통영함에는 DSRV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잠수함구조함으로서 DSRV를 붙여서 이것을 잠수함구조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잠수함이든 수상함이든 같이 구조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되는 게 맞지, 잠수함구조함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DSRV 때문인가요?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이상우 예, DSRV가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DSRV는 수상함구조함에는 장착 못 하나요?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이상우 예, 수상함 구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걸 나중에 설명을 좀 따로 해 주세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이상우 예, 의원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태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대식 그래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태훈 강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잠수함구조함의 핵심은 침몰하거나 좌초한 승조원들을 구조하는 임무가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되는 것이 맞는데 좌초되거나 침몰되면 바닷속에 높은 압력에 노출된 승조원들이 구조되었을 때 즉시적으로 감압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병원에서 해야 될 이런 시설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함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압 시설이 붙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김병주 위원이 제기한 부분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별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별도 예산으로 착각을……

○소위원장 강대식 아니아니, 위에 것만 수정한다고 정부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쪽만 수정하는 걸로 해서……



○임종득 위원 예.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연번 23번 육군경비정-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현용 육군경비정이 노후화됨에 따라 대체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현용 경비정의 노후화에 따라 육군경비정-Ⅱ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사업착수금이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김병주 위원이 얘기하신 것으로, 같은 취지로 이것은 50억 원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어떤 증액에 동의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5억 원.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5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5억 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24쪽입니다.

항공기사업입니다.

연번 24번 사업명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패키지시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추가되어 기본조사 용역 완료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및 부지매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연된 만큼 68억 원 정도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세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들 패키지시설사업 추진 방법 변경에 따라서 집행이 제한되는 건설보상비와 기본조사, 설계비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일단 기본조사 용역을, 부지매입을 위한 국방시설 사업계획 수립 병행해서 용역을 내년까지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26년 말부터 28

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은 27년부터 해서 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25쪽입니다.

연번 25번 보라매 최초양산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보라매(KF-21)을 최초양산하는 사업, 8.3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다른 보라매(R&D) 사업은 개발하는 사업이 8조 8000짜리 사업이고 그것에 대한 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최소 수준의 중도금 편성 및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주장비 중도금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2000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청장님, 이것 패키지사업 아닙니까? 이것 KF-21 패키지사업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최초 사업 전체가?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니, 이것은……

○강선영 위원 양산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최초양산 40대에 대한……

○강선영 위원 40대에 대한 것만입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양산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것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비행장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잡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시설 비용에 같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강선영 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한 질의…… 그러면 패키지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

○소위원장 강대식 예, 말씀하세요.

○강선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입니다.

이 전체 사업비 내에 패키지시설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패키지시설로서.

○강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초양산에 패키지시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양산만 계획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산해서 이게 있어야 될 항공기지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육군 기참부장 계신데, 거기 캠프이글에 이전해야 될

횡성비행장 내 육군이 사용하는 부지가 있어요. 항정대대가 있어요. 항정대대를 움직여야 거기에 KF-21 관련한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려면 이전해야 되는데 그건 캠프이글 사업 이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캠프이글에 72항정대대 이전할 때는 대형공격헬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같이 주둔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형공격헬기 사업이 지금 안 가는 것으로 돼 있으면 항정대대만 미리, 1개 대대만 움직이면 그 지역, 넓은 캠프이글에 대한 경계는 어떻게 할 거고 시설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육군에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걸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육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예, 이해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것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안에 지금 반영이 안 된 2000억 원을 증액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에는 1조 4000이 들어가 있는데……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은 게 아닌데 2000억 정도의 증액이, 이게 정상적인 예산안에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이게 워낙 사업이 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저희가 사실 필요한 것은 약 2조 2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1조 4000억 정도만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항공기 생산할 때 납품되는 구성품에 대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로 줘야 되는 그런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0억 정도가 꼭 들어가야 그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중소기업체들도 이것 때문에, 이 돈이 가야 계속 생산이라든지 유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과연 2026년도에 몇 대를 양산하는 것이고 몇 대를 양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데,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됐다 그러면 대수를 조정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그냥 2000억 정도의 증액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예산 반영이 적게 되면 대수를 낮춰야 될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현재 계획된 것은 내년에 8대거든요.

○임종득 위원 8대예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8대인데……

○임종득 위원 그러면 8대를 지금 못할 상황이 되니까 2000억을 더 달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8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 사실 충분한 것은 아닌데 결국은 2000억 정도 더 줬을 때 협력업체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요구되는 돈을, 100% 만족하진 않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충족시켜 주고 8대 생산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2

조…… 아까 얼마라 그랬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2000억이요.

○부승찬 위원 그다음에 26년도 안이 1조 4000억.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한 8000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네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800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에다가 결국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돈은 얼마예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게 한 1920억 원 정도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2000억 정도가 협력업체에 가는 돈이예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만일 그게 안 가면 KAI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외상으로?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러면 사실 원하는 부품들이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외상으로 사실 들어오는 그런……

○부승찬 위원 못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협력업체에다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8.4조 사업입니다, 이 40대 양산하는 비용이. 그런데 24년부터 28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종료시켜야 되는데 그 얘기는 매년 1조5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24년부터 사실 예산이 적게 반영되다 보니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추정하신 것처럼 실제 한국항공은 협력업체에 줄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이것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데 사업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산편성이 24년부터 부족하게 들어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까지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KAI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정부하고 업체의 연구개발 사업이잖아요, 이게. 물론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예, 양산사업이고요. 연구개발은 아니고 양산사업이고.

○부승찬 위원 예, 양산사업.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단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 국방 자원 내에서 항공 프로그램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연도별로 금액이 좀 적게 반영되는 것이 누적되는 현상이……

○부승찬 위원 그러면 만일 여기에서 2000억 증액이 안 되면 그다음에 27년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날 가능성…… 금액은 더 늘어나겠네요.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그냥 내년만 넘기자 이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 해에는, 27년도에는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테고 그래서 28년도까지 아니예요, 1차 양산이? 그렇지요?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28년도에 부담은 더 커지는 거잖아.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그래서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업체의 요구도 충족하고 전력화도 적기에 할 수 있는지 전체 사업을 두고 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그러면 청장님,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까? 유사한 사례가.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대규모 사업일 때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가지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까 5년에 연벽이 깔려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24년·25년도에는 연부율이 한 2%·13%였는데 결국 뒤쪽으로 가면 사실은 한 27%·8%.....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가 정부에서 돈을 못 받아서 협력업체에 줄 돈이 없어 이런 사례들이 있냐고요, 다른 데도.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것까지 제가.....

○부승찬 위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사업관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의견 문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28년도까지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체계업체도 죽고, 그러니까 아까 항공기사업관리부장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부채 비율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소위원장 강대식 저 부대의견 만들어 왔어요.

○부승찬 위원 아, 오셨습니까? 예.

○소위원장 강대식 지금 부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거기 그대로 들어 있어요.

○부승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강대식 제가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최근에 방위력 개선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에서 항공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증가율을 계속 제시하고 있지요,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맞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항공 프로그램의 적정 증가율을 적용하더라도 2023년까지 약간 5조 원에서 상회하는 그 수준인데 2026년과 이렇게 비교해도 획기적인 증액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다 하면 양산사업 32년까지 연평균 3조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생각도 되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방금 부승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거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무슨 뚜렷한 계획은 있는지.....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한정돼 있는 가운데 전력화시켜야 될 무

기체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같이 항공기, 예를 들어서 F-35A 2차 그다음에 이런 문제 그다음 아파치 성능 개량, F-25 성능 개량, 너무 많이 항공기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강대식 지금 육군이나 해군이나 다른 타군들은 입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실정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래서 그것은 사실 예산 논리로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은 합참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구 작전 수행하는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전력 위주 또 아니면 가장 취약해서 보완이 시급한 것 또 아니면 안전과 관련돼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아까 어떤 것들은 빨리 종결을 시켜 줘야 되는 것들은 일정 예산이 집중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예산 반영이 늦어서 결국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들은 사실은 계속 살려 놓는 것도 과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니까 청장님, 이거 양산 계획에 대해서 조정이 좀……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건데 이게 조정할 필요성이 나는 있다고 보는데.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래서 연말에 이런 전력과 관련된 또 장군 인사가 나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최적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소위원장 강대식 협의해 가지고 양산 계획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회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출 문제, 성공적인 추진 문제, 전력 공백도 생길 수 있잖아요. 40대, 80대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40대, 80대, 120대지요.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좀 내고자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보라매 최초양산의 2028년 전력화 일정 준수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런 내용의 부대의견을 좀 달고 싶어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동의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고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2000억 증액하고 부대의견까지 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26쪽입니다.

연번 26번 공중급유기 2차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전투기 항공 작전 지속능력을 보장하고 원거리 공수 임무 수행을 위한 공중급유기를 국외구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6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F-35A 추가 도입 및 KF-21 전력화 등 피급유 항공기 증가로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사업 착수금 3억 4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이게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두 대 갖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네 대 갖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강선영 위원 이게 애초에 25년도에는 우선순위의 3축 전력 노후 대체 수출형기에 속하지 않는다, 26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AI 드론 등 최첨단 무기에 속하지 않아서 이게 빠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공중급유기 네 대 있는데 지금 공중급유기가 급유기 목적보다는 그게 인원 공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61조 중에 약 43조가 병력 운용비로 들어가고 17조 정도 무기체계 획득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KF-21 양산도 들어가고, 28년에 끝난다고 하지만. F-35A 추가 도입하고 기타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어쨌든 그게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육군한테 좀 아쉬운 게 보면 해군·공군들은 무기체계 엄청나게 최첨단이라고 많이 올리는데 제가 작년에 2작사 갔을 때 2작사 레이더 엄청나게 노후됐는데 하나도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별 단가는 낮지만 전체를 하려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갖고 있는 게 당연하고 공군도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해군이 또 추진하는 거 있습니다. 상륙, 뭐라고 그러더라…… 수중에서 배에서 상륙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전력도 또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치-Ⅲ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핵 추진 가고, 여러 가지 가다 보면 예산을 사용할 곳은 참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필수 긴급 전력도 아니고 진짜 직접적인 전투, 육군으로 보면 전투 지원 무기고, 이런 것들을 4개나 있는데 또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공군 F-35A, KF-21 이렇게 전력화하면 급유기 네 대 정도 있으니까 좀 양보를 하면 그 사이에 해군도 전력화하고 핵 추진도 가야 되고, 이것도 분명히 연구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군도 지금 2.5세대밖에 안 돼 있는 그 많은 재래식 무기체계들 어떻게 다 바꿀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공군하고 해군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참에 공중전력

과·해군전력과·지상전력과를 통 쳐 가지고 1과·2과·3과 해 가지고 다른 군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옆으로 도로 경부, 남해 옆에도 좀 한번 봐 달라라고 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 적극 반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

○부승찬 위원 아니, 동의를 안 해줘서 한말씀 드려야겠네.

지금 네 대 보유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네 대가 공중에 다 떠 있나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안 떠 있지요? 실질적으로 급유와 관련된 작전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대 정도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부승찬 위원 한 대, 네 대를 다 띄우면 필요가 없지요, 네 대가. 그런데 한 대 정도가 있는 건데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독도 영토 분쟁부터 시작 해서 조종사들이 실질적으로 임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급박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대만 운용하면…… 공군에서 좀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공중급유 자격 조종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이태규 기참부장 이태규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시에 훈련 충족도가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100% 훈련이 돼야지 유사시에 방금 말씀하신 북한지역이나 주변국에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평상시 소요만 보더라도 이건 긴급한 소요입니다. 물론 재정 압박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공군에서 한 여덟 대 정도는 있어야지 비상 대기나 그 다음에 정비를 빼고 나면 두 대 정도밖에 가용하지 않는데 소요를 네 대 제기하고 싶었으나 최소한의 두 대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일단 이게 공중급유기 예산이 정부에 편성이 안 돼서 엄청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급유기를 가지고 전투기 60대 정도를 커버하잖아요. 맞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35대, 영국 같은 경우는 17대, 프랑스는 27대, 미국은 9대 정도를 급유기 한 대로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임무를 하는데 급유 때문에 내려와서 임무를 못 하는 경우가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마치 이거를 뺀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필요해요. 동해에서 임무를 하는데 공중급유기 속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서해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가는 겁니다, 공중급유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에 반영도 돼 있고 어차피 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 착수금 3억 4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지요. 그렇게 치면 모든 예산은 갈 수가 없지요, 모든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강선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강대식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이게 KIDA에서 23년 8월에 사업타당성 조사할 때 중환자용 의무후송을 요구 성능에 포함해서 24년 5월 28일 날 24-2차 방위사업 기획·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중환자용 의무후송 요구 성능을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포함한다’.

사실은 이게 명확한 능력이 공중급유기인데 이게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중환자용 의무후송을 한다. 우리가 중환자용 의무후송을 할 수 있는 이 공중급유기를 내리려면 조그마한 패드에 내리는 것도 아니고 활주로에 내리는데 이러한 걸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조건으로 넣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긴요하지도 않고요.

기대 효과가 뭐라고 나와 있냐? ‘공중급여 임무수행 능력 증진 및 공중급여 자격 획득 유지 가능’. 그건 뭐냐? 교육훈련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국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원거리 공수 지원으로 국가 위상 제고 및 재외국민 보호’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은 능력에 기반하는 것이냐 위협에 기반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 우리 수준은 능력에 기반하기보다는 위협에 기반하는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육군은. 그런데 지금 육군은 위협에 대비해서도 부족한데 공군이 자꾸 능력에 기반해서 이렇게 계속 키우자, 그것도 국제 재난 발생 시에 운용한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걸로 중환자의 의무후송을 어디다가 놓고 운용할 겁니까? 이 고정 이익을, 중환자용 의무후송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동의하지만 다른 게 충분하다면 해야 되지만 교육훈련용 공중급유기 조종사 양성하려고 실제 긴요한 장비, 전투장비를 뒤로 미룬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하세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일단 본질은 공중급유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F-35A가 추가 20대 들어오고 KF-21이 전력화되면 현재는 한 대당 60대를 급유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안 들어오면 한 대당 100대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전투기를 급유하는 거니까 약간 지원장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확대에서 패키지로 보면 이것도 사실은 전투장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지금 F-35나 앞으로 들어올 KF-21 등이 정말 이것이 있음으로써 작전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변국 위협 대비까지 포함하면, 현재 있는 것들의 작전 운영시간이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추가로 가서 전력화돼서 현재

있는 전력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저는 절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육군 출신이지만 제가 공군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물론 레이더도 중요하지요. 육군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킬체인이든 그다음에 평시 공중에서 작전하든 어떤 위급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작전 반경을 넓혀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청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선순위를 높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증액에 동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육군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육군에서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좀 더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획득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군은 공중급유기를 갖고 있나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꼭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공군 전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이 우리가 공중급유기로 연속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될 만큼 전투기 대수가 많고 공중급유기까지 갖고 있어서 전쟁 작전이 계속될 만한 그런 위협인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북한 위협은 상당히 우리한테는 치명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KF-21에 급유를 계속해 주게 되면 기지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계속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작전의 효율성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어쨌든 북한도 러시아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첨단 항공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조금 위협이 크진 않지만 미래의 북한 위협, 주변국 위협 고려하게 됐을 때,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 여러 가지 섬이라든지 해양 분쟁 이런 데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반됐을 때 전투기 조종사의 피로도도 줄어들고 왜냐하면 기지에 복귀하는 거라든지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강선영 위원** 청장님, 그렇게 전투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 급유해 가지고 작전할 수 있으면 대수를 줄여야겠네요. 대수를 줄여야지요, 그렇게 작전을 계속 할 수 있는 항공기를 띄우면. 자꾸 이렇게 논리가……

제가 말하는 큰 틀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부승찬 위원** 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KADIZ라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뒀어요. 이게 주권적인 관할권은 아닙니다. 헌법상의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적인 관할권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지적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KADIZ에 침범, KADIZ는 결국은 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재빠르게 식별해서 대응을 해서 우리 영토를 보호하는 일종의 버퍼존 같은 데지요. 방어를 해내는 거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KADIZ에 중국 항공기가 몇 차례 몇 번 침투했다, 일본이 몇 번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히 지적하는 게 대응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응 못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공중급유기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임무를 하고 사전에 차단 작전 같은 경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고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진다면 당연히 밀릴 수는 있지만 어차피 계획이 반영돼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4대인데 이제 우선적으로 2대만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지스함 같은 경우도 동해·서해·남해 할 거 한 대만 놓으면 되는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공 작전이 북한 위협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고 디터런스(deterrence)의 개념도 있습니다. 억제 개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공에서, 공역에서 임무를 함으로써 중국·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할 것 없이 한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라든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북한 위협만 대비한다면 물론 공중급유기가 필요 없지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소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순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항공 임무라든지 그다음에 KF-21이라든지 F-35라든지 최첨단 항공기를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임무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F-35A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거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 한 사항 가지고 지금……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결정을 하려고 하면 5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임종득 위원님이 부득이한 어떤 사유가 좀 있다 하길래 좀 빨리 진행하려 하는데 이 부분은……

○백선희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강대식 백선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육군에 대한 애정이 넘치셔서 제가 보더라도 육군이 단가는 적더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같이 신경을 조금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사청에서 하는 게 주로 무기체계이다 보니까 제가 요청한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공중급유기, 화생방 보호, GP에 무인지상센서 이 정도밖에는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요. 국감 때 이 부분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청장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KF-21을 미사일이 없어서 전투 능력 없는 전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급유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뛰어야 되는데 밥을 주지 않아서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전투기로서의 기능도 못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 이 부분을 강선영 위원님께서 좀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청장님께서 육군의 전력 체계와 관련해서 방사청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물론이고 강 위원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공군하고 타 군하고 좀 그거 하는 거 같아서 좀 마음이 그런데 국방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는 육군이 어디 있고 공군이 어디 있고 해병이 어디 있고 해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사업이 쏠리다 보니까 또 타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전체 폴 예산에서 우리가 얻어 올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서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보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소위자료 27쪽입니다.

연번 27번, 사업명 표적식별장비-Ⅱ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F-15K나 KF-16 전투기 주·야간 표적획득 및 정밀유도무기의 타격능력 향상을 위해서 표적식별장비를 국외구매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요 기존 장비 노후화 및 주요 부품 단종으로 대체 장비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등 사업 착수금 98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9800만 원에 대한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 연번 28번 F-35A 2차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F-35A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FMS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미국 제작사의 생산 계획 차질로 인하여 미국 자체 물량 확보로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대비 증액된 1000억 중에서 한 10% 정도인 101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의견으로 방사청은 F-35A의 2차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전투기가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항공기 인도 물량은 계약서대로 정상 납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에 부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 이게 납품계획서에 따르면 언제 도입 예정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본래 27년부터 30년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납품계획서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7년도……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6대 들어옵니다.

○부승찬 위원 ‘3분기 초도 물량이 납품 및 전력화 예정이나 미국 제작사의 생산 계획 차질로 인하여 미국 자체 물량 확보도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가 정부와 그다음에 제작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27년 3분기에 조기 납품하도록 그렇게 다 논의가 됐고요.

○부승찬 위원 논의가 미국하고 돼 있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이것 정상적으로……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문제가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7년 어느 정도, 27년 언제쯤, 3분기……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원래 최초에는 4분기였는데요. 좀 당겨서 3분기에 올 수 있도록 협조가 됐고요. 그래서 각각 27년도 6대가 계획대로 들어오고요. 전체적인 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감액 의견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거 같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 위원님께서 예산이 과하게, 왜냐하면 초기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는 거네요, 오히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승찬 위원 납품계획서보다 빨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미 측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강선영 위원이 해 놓은 거 자체를 지금 없어서 답변을 못 하는 건데, 청장님이 이 내용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달아놓은 내용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청장이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좀 잘못 알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것은 본인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풀지 않으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강선영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하셨다고 말씀을,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임종득 위원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말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 강중희 항공기사업부장 강중희 준장입니다.

이번 월요일 날 강선영 위원님께 직접 대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부분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 조금 이따가 다 해 놓고 내가 전화통화를 해 보고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해 났다가 마지막에 전화 해 보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 유도무기사업 부분 시작입니다.

연번 29번,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 R&D 사업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요 원거리 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차량탐재용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 Block-I, Ⅱ를 ADD 주관으로 연구 개발한 사업입니다.

연구 개발 중에 미 군용 GPS 제공 지연으로 대체장비를 적용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전문계약직 채용 예정 인원도 1명이 미채용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GPS 적용 변경에 따른 미집행 예상 금액 시험평가비와 그다음에 ADD 전문계약직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총 12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12.78억 원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연입니까, 불가입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러니까 군용 GPS 장착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 항재밍 GPS만 장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GPS와 관련된 시험평가비를 빼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빼는 거예요, 아예?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30쪽입니다.

자료 30쪽, 연번 30번 사업명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R&D)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KF-21의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를 국과연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 원칙적으로 연차별 기성률과 공정 진척도에 맞춰서 연부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 2026년도 예산에 27년도 시제비 중도금도 선집행하도록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시면 그래서 2027년 납품예정인 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연구개발 시제비 예산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안 물어볼 수도 없네요. 물어보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방사청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아니면 기재부가 임의대로 편성을 했어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 사업 관리 측면에서 약간 미흡한 건데요. 저희가 26년에는 납품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몇 개의 부품이 좀 제한되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27년 비용을 26년에 요구했던 건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관리가 좀 더 정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자료 31쪽입니다.

연번 31번,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Ⅱ(R&D)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적 소형무인기 및 멀티콥터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Ⅱ를 연구개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26년 예산에 신규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적기 전력화를 위하여 사업착수금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2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승찬 위원.

○부승찬 위원 이게 왜 신규로 정부 편성안에 올리긴 했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처음에 저희들 2억 원 올렸는데요. 사타가 그때 진행 중이

어 가지고 사타가 아직 완료가 안 됐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사타가 이제 완료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승찬 위원 사타 완료 시점은 언제예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10월에 완료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32쪽입니다.

32쪽, 연번 32번 사업명 철매-Ⅱ 성능개량 2차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철매-Ⅱ—천궁이라고도 합니다—천궁 유도탄을 추가 확보하고 철매-Ⅱ 통제소·레이더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동 사업의 패키지시설공사는 유도탄저장고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설계 단계에서 당초 공사비보다 예산이 초과하여 재설계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25년 연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사 지연으로 26년도에도 편성된 공사비 일부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공사비 4억 33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33쪽입니다.

연번 33번, 사업명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이지스함에 탑재하여 적 대함탄도탄, 항공기 순항 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수단으로 운용하고 유도탄을 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FMS 방식 과정에서 미국 측 LOA 수락이 지연되고 있고 25년 연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FMS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26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자산취득비 예산 4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LOA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는데 사유가 뭘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가 KDX-III Batch-I의 성능 개량 범위를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소요 합참에서, 소요 군하고, 그렇게 따르면 유도탄 소요 수정 등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LOA가 물가상승이나 또 변경 내용에 따라서 일부 재획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25년 내에는 LOA 수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무한정 밀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들 한 내년 6월 정도면 수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34쪽 이하부터는 방위사업정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연번 34번, 사업명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R&D)사업입니다.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신규사업입니다—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맨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보시면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 16억 원이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35쪽입니다.

연번 35번, 사업명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R&D)사업입니다.

우수업무포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우수업무포상금 신규사업입니다. ADD 연구원들의 우수업무 성과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마지막 보시면요 우수업무 성과자에 대한 선별적인 상시 포상금 10억 원이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10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ADD 연구원에 대한 우수업무 성과에 대한 포상 이게 원래 있지 않아요? 예산 자체가 정부 예산이 아니었나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24년도에 일부 우수업무포상금 한 7억을 일시적으로 편성을 해서 조치를 해 줬고요. 그런데 25년에는 미편성이 됐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게 계속해 오는 계속사업은 아니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보통 이런 연구소, 연구원에서 성과급을 주지요. 그리고 대개 성과급을 나눌 때 우수업무를 한 사람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과급 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성과급 체계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우수업무 성과자를 선별해 가지고 10억 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절한 수준의 돈인가, 몇 명에게 포상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좀 과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뒤에 ADD 연구소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과급은 일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억 원이 나온 이유는 한 100명 당 약 1000만 원씩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연구소 정원이 한 3200명인데 우수성과는 한 상위 3% 정도로 예상하고 그렇게 봤을 때 총 10억 원 100여 명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백선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이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해 왔으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24년에 한 번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24년도에 했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그래서 지금 1491명에게 나간 건가요, 1491명?

소장님, 1491명에게 나간 거예요, 24년도에?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대식 마이크 좀 주세요.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김세훈 ADD 연구계획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24년에 저희가 SLBM이라든지 고체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도 도움 주셔서 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7억 정도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때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다같이 격려해 주자는 의미로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한 1400명 정도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어떤 취지는 좀 이번에 425라든지 작년에 L-SAM 같은 것을 한 연구원들에게 좀 과격적으로 주면서 좀 더 사기를 더 북돋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청하고 어떻게 할 건지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체적인 규정화해서 지출을 할……

○부승찬 위원 25년도에는 왜 미반영됐어요? 미반영 사유가 뭐예요?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김세훈 저희가 이것을 한시적으로 받았는데 그다음 해에 재정 당국에 청하고 협조해서……

○부승찬 위원 요구했잖아요.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김세훈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재정 당국에서는 이런 처우에 대해서는 좀……

○부승찬 위원 아니,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확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야, 너네 이것도 있는데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왜 예산을 달라 그래’ 이런 거라든지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김세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해 보면 인건비 중에 특히나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에 반영이 상당히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승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재부에서 이게 일종의 미반영한 것 아니에요.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김세훈 예,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미반영을 하면 미반영 사유를 얘기해 줄 것 아니에요. 미반영 사유가 뭐냐 이거지.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김세훈 뭐……

○부승찬 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뭘……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김세훈 재정 당국에서 일단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승찬 위원 그냥 러프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김세훈 예, 그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 강대식 그리고 뭐, 또 말씀해 보세요.

○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 김세훈 그 이후에 두 번을 노력했는데 아무튼 잘 안 됐습니다.

○임종득 위원 얘기 안 해도 돼요.

○부승찬 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찬성입니다. 425 사업도 정말 성공적으로 연구원들이 정말 고맙다라는 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높이고 그다음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5기가 지금 떠서 시간은 얘기 못 하지만 돌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ADD의 연구원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그냥 무턱 대고 이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보다는 평가 기준 같은 경우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평가 기준. 그다음에 평가 선정단 위원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저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포상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번에 내가 받았으니 너네가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설명을 할 때 ADD에서 솔직하게 하면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위원들도 헛갈리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ADD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 기관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시스템들이 다 정립돼 있습니다. 연구원들 중에 사업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 가

지고 전부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이슈가 있을 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되고 25년 안 됐다가 26년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든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런 일은 이슈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매년 하고 있는 인센티브하고 그냥 통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헛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뜻 잘 이해하셨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기재부에 요구 논리를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소위원장 강대식 이것이 지금 예결산위에 올라가더라도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그건 모르는데 만약에 청장님, 예산이 증액이 반영이 돼 가지고 됐다 하면 차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포상 계획을 하겠다 하는 그 상세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36쪽입니다.

연번 36번 사업명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사업입니다. 두 개의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이유의 첫 번째 것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사업은 1단계로 지상로봇 자율주행기능 시험장 건설, 2단계로 인공지능, 캠프-바이오, 군용전지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1단계 공사비 50억을 당초 2026년도 예산안만큼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역입니다.

내역사업인 항공시험장 사업은 무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등 항공용 엔진 지상통합시험장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 진척이 늦어서 해당 공사비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정부안 원안 유지에 동의하고 두 번째, 사업 경과를 고려해서 공사비 10억 원 감액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37쪽입니다.

연번 37번 내역사업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R&D) 국방우주인증센터에 관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우주무기체계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을 수행하는 국방우주인증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군사위성은 부품부터 체계까지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68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착수금 0.68억 원의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다음 자료 38쪽입니다.

연번 38번 시험평가 기반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이 사업은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것인데요.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제도 수행을 위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으로 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에 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만 2026년도 예산안에는 ISP와 시스템 구축사업이 동시에 계상되어 있어서 시스템 구축사업 6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39쪽입니다.

연번 39번 무기체계 공급망관리 경제안보품목 국내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경제안보품목 국내 공급망 구축사업은 무기체계 부품·소재 등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형성을 위해 품목별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현재 20여 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 15개 선도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최대 3개 정도 선도사업자에 대해 재정 지원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중국 수출 통제 등 당면한 공급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가적인 선도사업자 지원을 위해 예산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50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50억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들 핵심 부품, 희토류 같은 것에 대해서 선도사업자를 원래는 기존 예산으로 3개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8개 정도 하려고 하면 5개 업체를 더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50억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국내 공급망 구축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거는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하는 실무자들 있잖아요 실무자들이 다 계약직이에요. 지금 계약직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이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이거는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아예 진짜 실제 실무자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 줘야 된다, 그 차원에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40쪽입니다.

꼭지수로 4개 남았습니다.

연번 40번 국제방산 협력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국제방위산업협력사업은 각종 시장 개척 및 국제방산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지속적 방산 수출 증진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최근 급증하는 방산협력 소요에 대응해서 국외업무여비 3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41쪽입니다.

연번 41번 방위산업 수출지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 안에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는 방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국 요구 사양에 맞게 개조 개발하는 비용을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과제 추가 지원을 위해서 연구개발활동비 등 예산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42쪽입니다.

행정지원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연번 42번입니다.

사업명 교육훈련 해외획득·군수교육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청 직원들의 국방획득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원(ASPI)에 방문연구원 파견 예산 5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5600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5600억 원이 아니고 5600만 원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죄송합니다. 56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는 동의를 안 하는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사실 저희가 호주하고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방산 분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K-9하고 레드백이 있지만 또 사실 지난번에 호위함 관련된 사업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잠정적으로 그런 방산협력의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ASPI라고 거기가 싱크탱크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생각 또 그들의 어떤 여론, 생각 이런 전략을 나름대로 공유하면서 그런 방산협력의 일환으로 파견하는 것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 이것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꼭 필요하다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서 기재부 설득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소위원장 강대식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게 지금 몇 명

을…… 지금 1명이에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현재는 1명이고요.

○임종득 위원 그 1명이 몇 개월을 가 있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지금 6개월이나…… 2명이 가면 6개월 정도 보고요 1명이 가면 1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예산은 5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일부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게 추가가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가는 사람이…… 5600만 원 가지고 소화가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것 좀 있겠지.

○임종득 위원 모자라 안 돼요.

그게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닙니다. 여기 정부 안에는……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1년을 보내는데 56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난센스라니까.

○소위원장 강대식 뒤에 배석해 있는, 빨리 대답할 수……

○임종득 위원 이야기하세요.

○소위원장 강대식 예, 이야기하세요.

○방위사업청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직무대리 김동춘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직무대리 김동춘입니다.

동 사업은 파견 인력에 대한 비용만 반영된 것으로 파견되는 전략연구원에게 지급하는 1000만 원과 생활비 지원 46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해결이 된다?

○방위사업청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직무대리 김동춘 예, 최소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소위원장 강대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다음, 자료 43쪽입니다.

43쪽과 44쪽은 세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다 세입 부분이구나.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43번입니다.

이거는 기타재산 이자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금융자산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예치이자라든지 착·중도금 약정이자이라든지 수입을 계상한 세입 항목이 있는데요. 최근 3개년 평균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금액이 286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예상되는 금액을 따져 보니 한 390억 되니까 105억 정도 세입 예산을 늘려도 되겠다 그런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4번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4번은 사업명이, 아까 앞에는 기타재산이었고 이거는 기타경상 이전수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이 항목은 예를 들면 FMS 운용수익금이라든지 계약정산액 등을 반영하는 세입 항목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을 참고해서 3597억 원에다가 가중치를 반영해서 한 4154억 정도로 돼 있는데요. 최근 증가하는 거를 추세를 보니, 실제로 계산해 보니 한 5400억 정도 될 것 같아서 1247억 원 정도의 세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첫 번째, 기타재산 이자수입 105억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고 두 번째, 기타경상 이전수입 1247억 원 증액은 최근 증가하는 수납 실적을 고려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입인데 증액하는 것 위원님들이나 저나 동의 안 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1차 심사가 끝났는데 우리가 즉 심사를 해 오면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미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9페이지, 9쪽으로 돌아가서……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보류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8쪽 무인지상감지센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 부분은 임종득 위원님께서 이견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임 위원님……

○임종득 위원 설명 못 들었어요.

○소위원장 강대식 설명을 못 들었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육군 기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지금 잠시 기참부장이 옆방에 가서서 임종득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세요. 시간 드릴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 것.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두 번째 보류는 자료 11쪽입니다.

중거리자폭 드론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승찬 위원 그거는 합의됐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께서 이견을 제시했는데 부승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원안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원안대로 103억 감액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6쪽입니다.

26쪽 공중급유기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저는 공중급유기 사업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찬성합니다.

또 백선희 위원님은요?

○백선희 위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부승찬 위원님은?

○부승찬 위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황명선 위원님은요?

○황명선 위원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황명선 위원 이거는 설계비가 이게 안에, 이 예산안에 설계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황명선 위원 그래서 아주 시급하다라고 봤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이것 강선영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다가 성질이 좀 낫는지는 몰라도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 급유기에 대해서 강선영 위원님께 잘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시고, 일단 오늘 이 사안을 결정을 지어서 내일 전체 상임위원회에 결정 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강선영 위원님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시더라도 오늘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위원장님, F-35A에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단은 초안에 넣어 놓고 올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KF-21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게 아니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급유기에 있었나?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급유기에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없었잖아.

KF-21은 제가 아까 전에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죄송합니다.

그다음, 보류 사항 네 번째입니다.

28쪽입니다.

F-35A 2차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까 강선영 위원님……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강 위원님하고 통화해 보신다고,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오해가 풀렸다고 답변을 저희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명선 위원 그사이에 잠깐……

청장님, 28번 이것 지금 보류됐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F-35A.

○황명선 위원 두 번째에 보면 '27년 3분기 초도 물량이 납품 및 전력화 예정이나 미국 제작사의 생산계획 차질로 인하여 미국 자체 물량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결론적으로 27년 3분기에 정상적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서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황명선 위원 사실과 내용이 좀 다르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정상적으로 진행입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확인했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도 안 하는데 왜 회의합니까?

○황명선 위원 아니, 잠깐 비어 있는 사이에……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장을 물로 봅니까?

(웃음소리)

28페이지, F-35A 2차 항목에 대해서는 방금 강선영 위원하고 통화를 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 불수용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지요.

맞지요, 감액 없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정상적으로.

○소위원장 강대식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리고 부대의견도 안 하는 것으로, 거기 부대의견에 강선영 위원도 제기를 하셨거든요.

○소위원장 강대식 그렇지, 부대의견까지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1차 심사했을 때 보류되었던 사안 중의 한 사안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설명을 듣고 와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잘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5분만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지막 하나 남은, 연번 8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금방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8번입니다. 무인지상감시센서.

○소위원장 강대식 8쪽, 무인감시체계.

정회 시간에 설명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한번 읽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8쪽에 있는 8번, 무인지상감시센서 부분에 관해서는 증감액 부분은 소위자료에 있는 대로 67억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부대의견으로 뒤쪽에 있는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관련해서 첫 번째 부대의견은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작전 체계와 사업 추진하고 연동해서 한다’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지휘관의 지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한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한 워딩은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8번, 무인지상감시센서 부분에서는 정부안대로 가고 부대의견을 새로 달아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과 부대의견 문구 조정에 대해서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의결 관련해서 석종건 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지적사항과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소요군하고도, 합참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주요 전력들을 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공유를 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무기체계들이 운용되는 개념이나 작전계획과 관련돼서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요군의 노력, 합참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심을 갖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최근에는 공중 전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혹시나 공군 위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해병대나 육군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 합동성이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의 최우선의 기준이 될 거고 상대적으로 합동성 차원에서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전력들이지만 군에서 특정 제대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비록 합동성 차원에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신경 쓰면서 같이 전력 증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논의해 주신, 심사 의결해 주신 방위력 개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사청이 좀 더 꼼꼼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오늘 장시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석종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강대식 강선영 백선희 부승찬 임종득 황명선 황 희

#### ○청가 위원(1인)

김병주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홍수미

합동참모본부

제1전력기획처장 김세훈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오혁재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김태훈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이태규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 박승일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기획재정담당관 윤미경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기획조정관 홍미루

국제협력관직무대리 박애서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국방기술보호국장 한경수  
화력사업부장 김호성  
함정사업부장직무대리 오지연  
항공기사업부장 강중희  
헬기사업부장 고희석  
유도무기사업부장 오성식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김동춘  
감시전자사업부장직무대리 이승호  
첨단기술사업단장직무대리 정재준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이상우  
운영지원과장 김세환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연구계획부장 김세훈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계획예산실장 김경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기획조정부장 이상용